



2020년 10월 15일 | Equity Research

제약/바이오 10월 관세청 통관데이터

10월 관세청 통관데이터

진단키트 9월 통관데이터

10월 15일 0시 기준 관세청에서 발표한 9월 진단키트 (HS Code, 3822.00) 수출금액은 수리일 기준 2억 8,751만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1,248% 증가했으며, 8월과 비교해서도 59.1% 증가하였다. 8월 기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진단키트 수출금액은 4월 고점을 돌파 신고점을 다시 쓰게 되었다. 8월과 9월 진단키트 수출이 다시 증가한 이유는 1) 주요 수출국가인 유럽에서 7월 중순 여름 휴가 이후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였고, 2)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계절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씨젠의 소재지인 서울시 송파구 진단키트 수출금액은 출항일 기준으로 9,653만 달러(한화 약 1,107억원)로 8월 대비 무려 46.7% 증가하였다. 8월 수출금액도 6,580만달러로 4월 고점을 돌파했는데, 이 고점은 9월 다시 갱신하게 되었다. 바디텍메드가 위치한 강원도 춘천시 9월 면역진단, 분자진단, 진단장비의 수출금액은 8월 대비 17% 감소했으나, 3분기 합은 2분기 대비 약 29% 증가하면서 양호한 실적 달성이 기대된다.

백신 9월 통관데이터

HS Code 3002.00에 해당하는 백신의 경우 수리일 기준 1,458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0.4% 감소하였다. 그러나 녹십자의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시의 백신 수출액은 출항일 기준으로 942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4.5% 증가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억제하고자 하는 북반구 지역의 노력으로 인해 9월 녹십자 백신 수출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녹십자의 경우 4분기에도 북반구 독감백신 수출이 3분기보다 증가한 200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분기 녹십자의 양호한 실적이 기대된다.

9월은 특신의 계절적 성수기의 시작

특신 수출금액은 수리일 기준 2,138만 달러로 전년대비 22.8% 증가했다. 작년 9월에 미국향 수출이 129만 달러 발생했던 점을 감안 시 미국향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29.7%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월 다시 특신 성수기가 도래하면서 7,8월과는 달리 특신 수출이 증가한 것이다. ITC 예비판정에서 10년 수입금지 조치결정이 내려진 미국의 경우 9월에도 48만 달러로 올해 4월부터 수출금액이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우 전년 대비 약 9.0% 증가하면서 중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감소한 5월부터 계속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4분기는 특신 성수기로 본격적인 특신의 수출 증가를 기대해 본다.

Issue Comment

Overweight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선민정)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0년 10월 15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선민정)는 2020년 10월 15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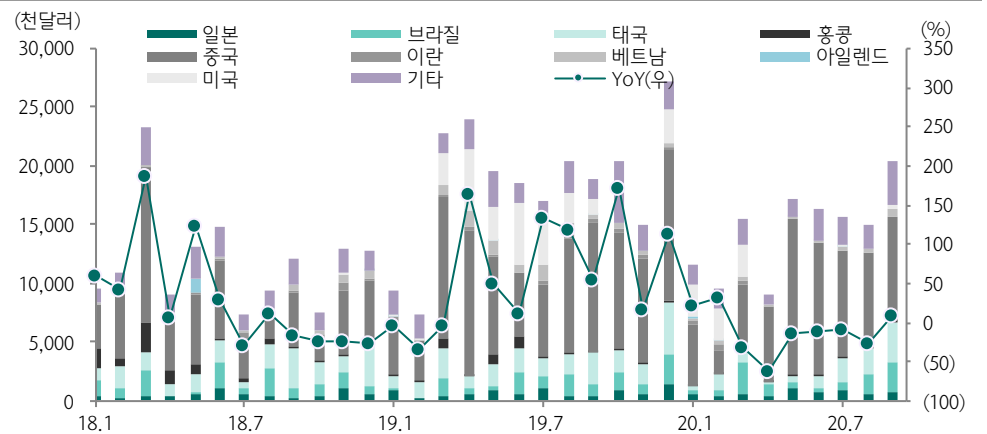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선민정
02-3771-7785
rssun@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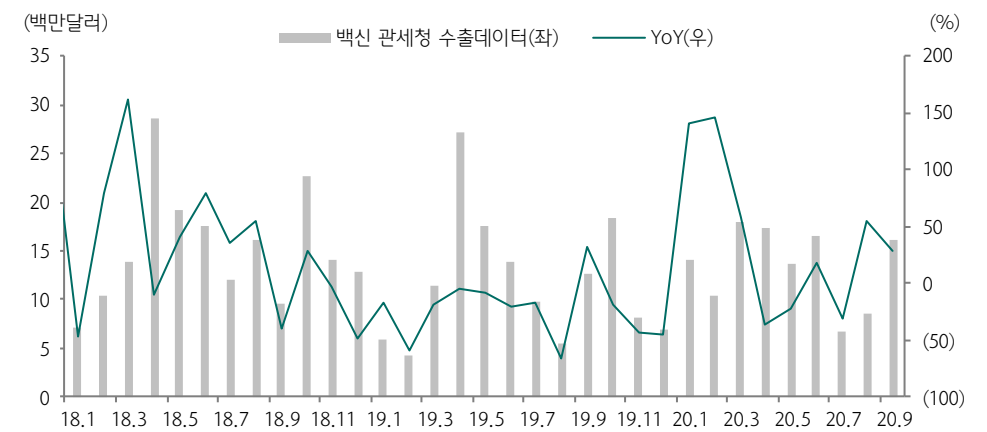
RA 강승원
02-3771-3454
seungwonkang@hanafn.com

그림 1. 백신 관세청 수출데이터(HS코드 3002.90.3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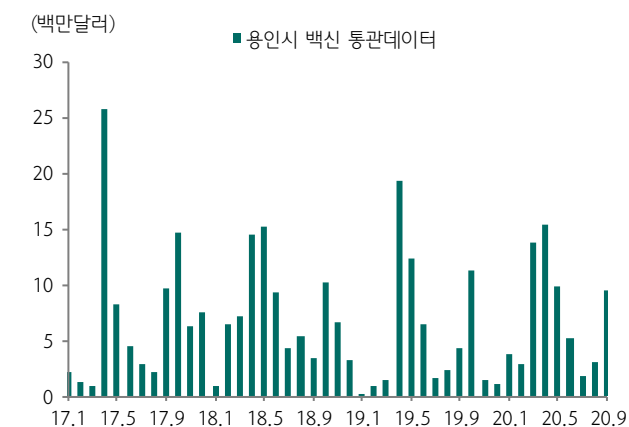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하나금융투자

그림 2. 백신 관세청 수출데이터(HS코드 300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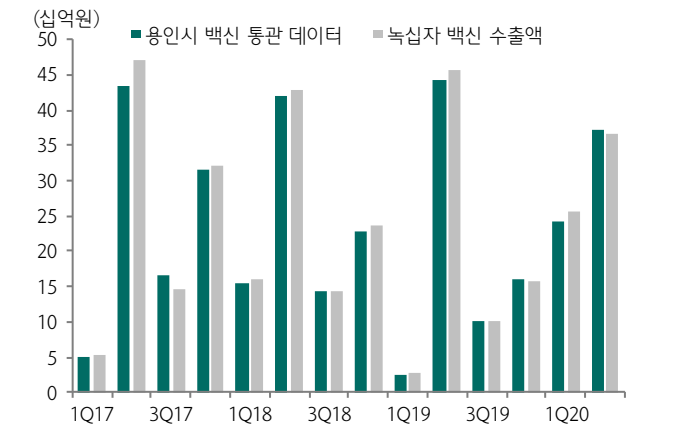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하나금융투자

그림 3. 용인시 백신 통관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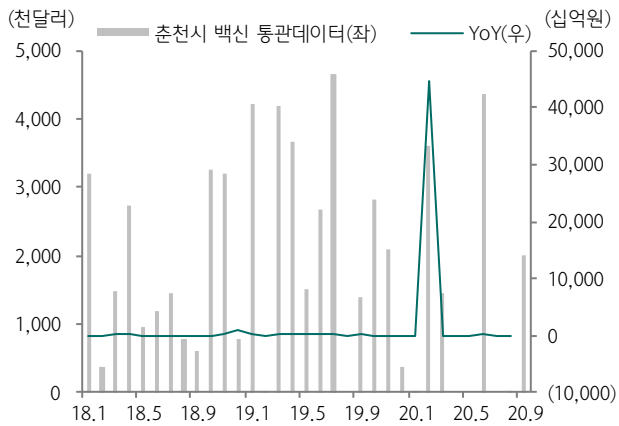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하나금융투자

그림 4. 분기별 독입자 백신 수출금액과 비교(상관계수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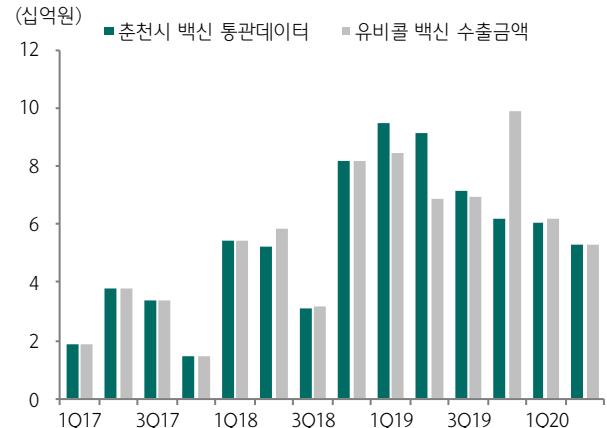
자료: 하나금융투자

그림 5. 춘천시 백신 통관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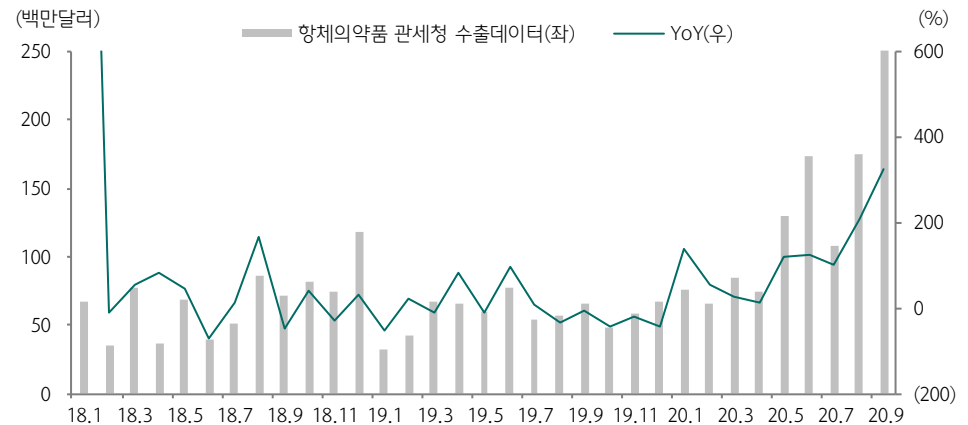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하나금융투자

그림 6. 분기별 유비콜 백신 수출금액과 비교(상관계수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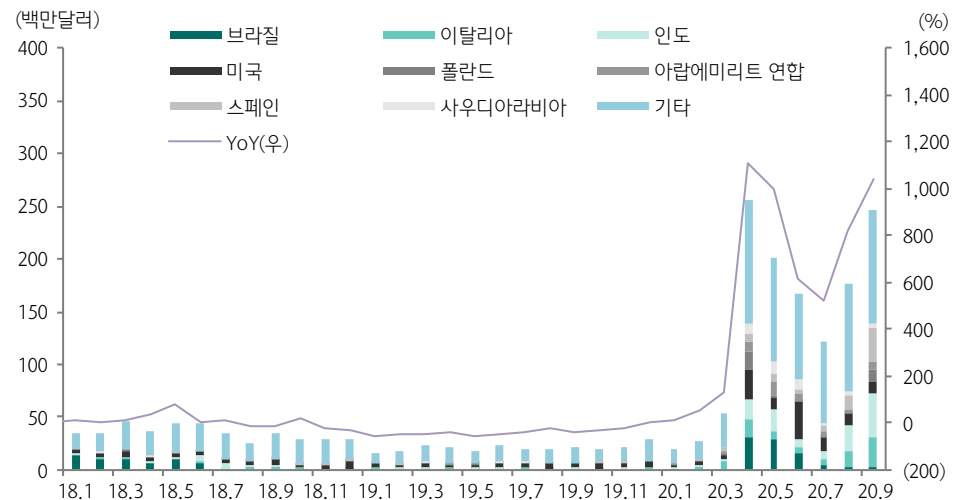
자료: 하나금융투자

그림 7. 항체의약품 관세청 수출데이터(HS코드 300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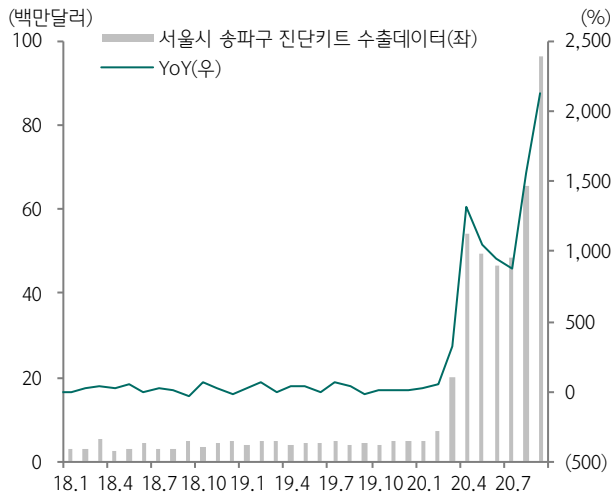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하나금융투자

그림 8. 진단키트 관세청 수출데이터(HS코드 382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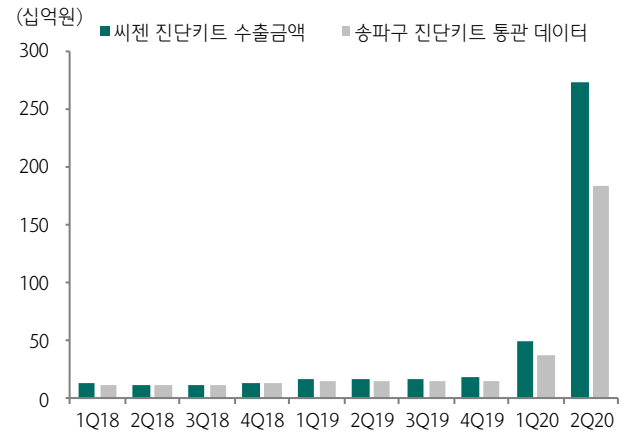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하나금융투자

그림 9. 서울시 송파구 진단키트 수출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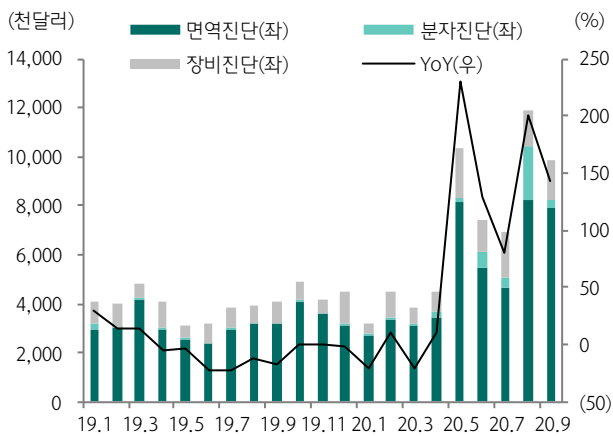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하나금융투자

그림 10. 분기별 씨젠 진단키트 수출금액과 비교(상관계수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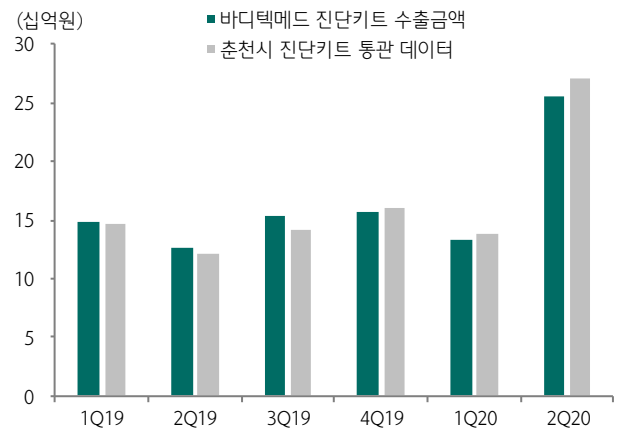
자료: 하나금융투자

그림 11. 강원도 춘천시 진단키트 수출데이터



자료: 관세청, 하나금융투자

그림 12. 분기별 바디텍메드 진단키트 수출금액과 비교(상관계수 99%)



자료: 하나금융투자